

목포시,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온라인 30일까지 현장 19일~30일까지 접수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존의 복지제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제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기준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금융재산 및 부채 미반영)인 가구 중 예산범위 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세대별 일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그리고 현장접수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신청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신청을 적용하며,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온라인)출수 ▲(일-온라인)찍수가 해당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는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이후 관련서류 업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합산(월)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드 하는 방식으로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과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일출산 국화축제 취소

도심 곳곳 국화 전시...코로나19 지친 군민들 정서적 위로



영암군은 오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예정한 '2020 일출산 국화축제'를 최종 취소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조용한 전파가 계속

되는 상황 속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데다 독감 인플루엔자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 등을 고려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영암왕인문화축제와 10월 마한축제에 이어 일출산 국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된 일출산 국화축제는 6개 분야에 54종의 프로그램을 일출산 기찬랜드에서 운영하였다.

국화 분화 27종, 24만여점을 전시하여 색채 가득한 동심이 꿈꾸는 가을소풍 컨셉의 전시연출로 국화조형물과 포토존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국화작품 전시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방문객 맞춤형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하여 방문객 90만명이 다녀갔으며 1억5천만원의 예산절감과 2억5천만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바 있다.

한편, 농가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낸 국화조형물 243종과 국화분재 300점 및 국화화분 38,200점, 핑크몰리 1,000점 등은 읍·면 시가지에 경관 조성용과 기찬랜드 등 주요관광지, 관공서와 학교주변 등 도심 곳곳에 분산 배치하여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에게 정서적인 위로를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2020 일출산 국화축제는 안전·경제축제를 모토로 축제를 준비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알차고 다양한 볼거리와 특색있는 국화작품 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공공형 버스' 오늘 부터 운행

삼향·남악·오룡·일로 순환...하루 28회 운행

무안군은 12일부터 일로읍 오룡지구와 교통여건이 열악한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형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버스 사업은 2020년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이나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국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은 오룡지구에서 남악중·고등학교, 상업시설, 공공서비스기관을 경유하여 삼향읍사무소와 일로읍사무소까지 순환운행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25분 간격으로 하루 28회 운행한다.

이번 개통으로 신도시 병의원 및 상업·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해졌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수확철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예방 당부

음주운전 금지·과도한 농작업 금지 등 안전운전 준수

영광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시 농기계 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확철 농기계 운전자의 부주의나 방심, 교통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농작업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작업 중 음주운전 및 과도한 농작업을 금지하고 가급적 야간운행을 자제하는 한편 농작업을 하기 전 농기계 사전점검과 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등 농기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농기계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전복, 충돌, 감김, 떨어짐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농기계 종류로는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순이며 ▲연령대는 70대, 60대순으로 농기계 사



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최종 선정됐다

신안군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압해농협의 '무화과', 신안농협의 '대파'작목에 대하여 2021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개 경영체 모두 선정되어 2022년까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압해농협(조합장 천성태)에서는 '무화과'작목에 대해서 컨설팅, 조직화 교육 등 역량강화와 저온저장 및 저온선별장 시설이 완공되는 2022년부터는 고품질 향상 및 공동출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